

李王職 관료 朴靑彬의 서화수집과 《書窓淸供》*

황정연**

- I. 머리말
- II. 朴靑彬의 생애와 李王職 官歷
- III. 朴靑彬의 교유관계와 《書窓淸供》의 제작
- IV. 《書窓淸供》의 구성과 내용
- V. 近代 書畫收藏 자료로서 《書窓淸供》의 성격과 의의
- VI. 맺음말

I. 머리말

1910년 8월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 이후, 조선의 최상위층이자 대표자였던 황실은 일본 皇族에 준해 李王家로 지위가 강등되었고 고종의 직계 및 방계 구성원들에게는 王公族의 지위가 부여되었다.¹ 1910년 조선총독부는 ‘皇室습’을 제정해 舊 황실인사들을 예우한다는 명목으로

* 이 논문은 2015년 12월 5일 개최된 한국미술사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패널 “이왕직 체제하 한국서화의 전통과 변모”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문화재청 학예연구사

¹ 李王家라는 용어는 1910년 8월 29일에 반포된 「大日本天皇陛下詔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황족 전담 부서인 宮內省 소속이었으며, 범주는 고종(德壽宮李太王), 순종(昌德宮李王), 왕세자(英親王 李垺), 興親王 李熹(李載冕) 公, 義親王 李垹 公이 해당하였다. 일제강점기 이왕가의 지위에 대해서는 신명호, 「일제하 이왕직과 이왕가 족보」, 『한국학대학원논문집』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66), pp. 91-114; 이승우,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李王職의 운영」,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윤상, 「일제하 '조선왕실」



도 1 이왕직 청사 전경, 1920년대, 창덕궁 후원(국립중앙 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이들을 관장할 李王職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음해 1911년 2월 창덕궁 후원에 집무실을 두고 조선 왕공족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식기구로 출범시켰다(도 1).² 명분상 대한제국 황실업무를 담당했던 宮內府를 계승한 이왕직은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는 곧 이왕직의 존립 기간과도 부합한다.

한국미술사에서 이왕직 운영 기간(1911~1945)은 서화계가 근대기로 접어든

시대적 전환기이자 전통적 작품양식의 고수와 새로운 작가적 시도 속에서 갈등과 변화를 거치며 수용한 양상을 복합적으로 보여준 시점이다.³ 또한 書畫收藏과 감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왕실이라는 대규모 수요가 약화된 후 경매와 신문광고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민간에서 작품구득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정치가, 관료, 전문직업인 등 새로운 신진 愛好家층의 활동이 두드러졌다.⁴

이왕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제 식민통치를 위한 기구였다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학계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왕직의 업무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⁵ 또한 조선말기 왕실미술의 일면을 계승했다는 점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한 서화가들 중 궁내부 또는 이왕직 관료로서 근무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근대 한국미술사 전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韓國文化』 40 (2007), pp. 315-342.

2 『朝鮮總督府皇室令』 第34號 「李王職官制」 (1910.12.30. 제정/ 1911.2.1 시행). 이왕직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본 황실령이 제정된 날짜에 근거해 1910년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시행날짜가 1911년 2월 1일이라는 점을 들어 실제 운영은 191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추세이다.

3 조선말기~근대 전환기 미술사 동향에 대해서는 안휘준, 『朝鮮王朝 末期(약 1850~1910)의 書壇과 畫風』, 『조선말기회화전』 (삼성미술관 리움, 2006), pp. 133-146; 강민기, 「근대전환기 한국화단에의 日本畫 유입과 한국화가들의 일본체험」, 『美術史學研究』 253 (2007), pp. 215-251 ; 홍선표, 『한국근대 미술사』 (시공사, 2009) 참조.

4 근대시기 수장가에 대해서는 김상엽, 『미술품 컬렉터』 (돌베개, 2015) 참조.

5 예를 들어 이왕직에서 관리했던 舊 황실재산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有·無形 문화유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 이왕직 소장 이왕기도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의 모태가 되었고 덕수궁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이 되었다. 그리고 이왕직아악부의 활동은 오늘날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졌으며 이왕직에서 관리한 各宮과 陵, 종묘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증명해줄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이왕직이 일제강점기 역사에서 차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국내외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집성하고 職制와 운영실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확산되고 있으며,⁶ 미술사 분야에서도 일제강점기 儀軌 등 왕실자료의 편찬, 이왕가 박물관과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운영, 미술 후원자로서 영친왕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왕직의 역할을 다룬 성과가 발표되었다.⁷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확장시켜 이왕직 관료와 동시대 서화계와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朴靑彬(1882~1931)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주빈은 30년 가까이 궁내부와 이왕직에 재임하면서 조선왕실로부터 이어진 궁중문화와 왕족들의 생활상을 가까이서 체험했을 뿐 아니라 동시대 여러 서화가들과 교류하며 이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서창청공》이라는 서화첩을 남겼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박주빈의 활동과 그가 만든 화첩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서화감상과 후원의 場으로서 이왕직의 기능과 일제강점기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서화교류가 갖는 미술사적 의미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겠다.

II. 朴靑彬의 생애와 李王職 官歷

1. 家系와 관료로서 立身

박주빈의 생애는 궁내부와 이왕직 관료로서의 官歷과 순종~영친왕 재위 시기 李王家를 보필한 활동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⁸ 그는 御使 朴文秀 집안의 高靈朴氏 進士公派

6 역사학계에서 이왕직 연구는 職制와 財政, 이왕가의 활동, 일제강점기 조선인 관료의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왕무, 「李王職의 유래와 장서각 소장 이왕직 자료의 沿革」, 『藏書閣』 31 (2014), pp. 34-57; 이승엽, 「일본 국회사서관 헌정자료실 및 공공문서관 소장 이왕가 관련 문서의 현황과 연구」, 『藏書閣』 31 (2014), pp. 80-106; 장영숙, 「李王職의『高宗·純宗實錄』 편찬사업과 그 실상」, 『史學研究』 116 (2014), pp. 105-142; 정옥재, 「국가기록원 소장 '이왕직 관련 자료'의 현황과 가치」, 『藏書閣』 31 (2014), pp. 58-78; 김명수, 「1915~1921년도 구황실(李王家)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藏書閣』 35 (2016), pp. 6-42 등.

7 최공호, 「李王職美術品製作所 研究」, 『古文化』 34 (1989), pp. 97-123; 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美術史學研究』 227 (2000), pp. 81-104; 박정혜, 「藏書閣 소장 일제강점기 儀軌의 미술사적 연구」, 『美術史學研究』 259 (2008), pp. 117-150; 조은솔, 「일제강점기 李王家의 미술 후원-英親王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서지민,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연구 : 운영과 제작품의 형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8 박주빈의 생애에 대해서는 『高靈朴氏大同譜』 (回想社, 1987), 『고종실록』 및 『순종실록』, 『朝鮮紳士大同譜』 (日韓印

의 후손으로, 字는 四由, 號는 晚川, 본적은 충남 홍주군 얼방면 晚川里(현 충남 청양 용천리)이다. 충청지역은 고려박씨 가문의 賜牌地이자 17세기 이후 대대로 세거한 의미 있는 지역이었던 만큼 박주빈의 역시 고향의 지명을 따라 자신의 호를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⁹ 良齋 田愚(1841~1922)의 학통을 이은 유학자 鄭觀海(1873~1949)로부터 학문을 익혔으며 이 때 배운 漢學은 그가 詩作과 서화를 이해하고 이 방면에 행적을 남길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¹⁰

1903년(22세) 京城學堂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3년 뒤 1906년(25세) 궁내부 황실제도국주사가 되어 처음으로 관직에 발을 디뎠다. 그 후 宮內府 掌禮院 掌典官으로 입신하여 1911년(30세) 이왕직이 설치된 후에는 고종을 近侍한 부서인 李太王附에 배속되어 실무를 담당하였다.¹¹ 그가 어떠한 경로로 궁내부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려박씨 친족 중 상당수가 이미 궁내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박주빈이 관료생활을 하기 전 사촌 朴鳳彬(1838~1904)은 궁내부 특진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8촌 朴奎熙와 朴春熙는 각각 通政院 주사와 商務社 明查長에, 朴武彬, 朴鼎熙(1839~1903), 朴正熙 역시 이왕직 사무관장인 順康園參奉과 泰陵參奉, 懿陵參奉을 역임하는 등 고종 연간부터 관직에 종사한 인물들이 여럿 있었다.¹²

2. 순종~영친왕 재위시기 활동

박주빈은 고종 재위 시 관직 생활을 시작했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한 시기는 ‘昌德宮 李王’ 순종과 英親王의 휘하에서였다. 순종과 순종비는 박주빈에게 중국 瀋陽과 大連 등지에서 御用

刷株式會社, 1913), 『每日申報』등 고신문자료, 『大韓帝國官員履歷書』(탐구당, 1971), 각종 의궤를 참조하였다.

⁹ 『高靈朴氏大同譜』卷3, p. 270. 박주빈은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1920년 선대의 遺筆을 모아 『高靈朴氏世譜』를 편찬하기도 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청구번호 A44).

¹⁰ 鄭觀海의 일기 『觀瀾亭日記』卷44, 「己未」二十六日戊寅條에는 박주빈이 수업료를 쌀로 냈는데, 한 번도 어기지 않아信義있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내용이 있다. 그의 경제력과 됴됨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¹¹ 『李王職職員案』, 1911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578). 이왕직은 총 여섯 번에 걸쳐 직제의 변화를 거쳤으며, 1911년 박주빈이 속한 ‘李太王附’는 ‘王公附’라는 새로운 사무규정에 따라 ‘王世子附’, ‘公族附’와 함께 설치된 부서였다. 각 附에는 主任事務官, 事務官, 贊侍, 醫典, 技師 등이 배치되었다. 이태왕부와 왕세자부는 고종과 순종이 모두 흥서한 뒤인 1928년 ‘故李王妃附’로 개편되었다. 이왕직 직제에 대해서는 이지선·야마모토 하나코, 『職員錄을 통해서 본 李王職의 職制 연구』, 『東洋音樂』26호(2004), pp. 1-26; 장신, 「일제하 이왕직의 직제와 인사」, 『藏書閣』35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pp. 70-103 참조.

¹² 『高靈朴氏 進士公派 寄贈遺物』(천안박물관, 2012). 상무사는 1899년 보부상의 관리와 기타 상업활동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관청으로, 明查長은 지방 조직의 중간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직위이다.



도 2 李王職 主殿課長으로 승진 후 박주빈의 모습(『매일신보』 1928년 8월 21일)

품을 조사하고 일본 도쿄 대정박람회(大正博覽會)에 참석해 선진 문물을 시찰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왕족들의 상장례, 혼례, 영접 등의 업무는 물론 주변 관료들과 연관된 사사로운 일도 심부름을 시키는 등 그를 두텁게 신임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 박주빈은 순종이 홍서한 후 義親王과 영친왕, 그 일족들의 일상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였고 조선총독부는 그가 왕족들의 일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는지, 고종 및 순종실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를 사료조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이왕직에서 박주빈의 마지막 행적은 47세 때인 1928년 그가 이왕직 主殿課長 자리에 올랐다는 매일신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도 2). 기사 속 박주빈의 모습은 이왕직 주전과장에 승진한 뒤 촬영한 것으로, 마른 체격에 다부진 얼굴을 하고 있다. 신문에서도 그가 20년간 이왕가의 제반업무를 맡아 보았다고 하여 오랫동안 왕실사무에 깊숙이 관여한 행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¹⁴ 당시 이왕직의 대다수 조선인 사무관들이 승진을 하지 못한 채 만년 사무관으로 지낸 것에 비추면 박주빈의 과장 승진은 파격적인 대우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는 이왕직 주전과장으로

¹³ 『純宗實錄』附錄 卷5, 純宗7年(1914) 3月 3日(양력); 『純宗實錄附錄』 卷5, 純宗7年(1914) 6月 20日; 『純宗實錄附錄』 卷7, 純宗9年(1916) 6月 21日(양력) 등.

¹⁴ 『每日申報』, 「李王職에 새로 생긴 主殿課長 朴胄彬氏」(1928년 8월 21일 제2면), “이왕직에 掌侍司라 하는 것이 없으면서 그 대신 主殿課라 하는 것이 생겼다. 주전과는 그동안 掌侍司에서 하던 內殿의 제반사항을 맡아보게 되었으니, 새로이 과장이 된 분은 이왕가에 20여년을 봉사하는 박주빈씨이다. 47세에 비로소 과장이라니, 기쁘기보다는 부끄럼스스 하는 박과장의 낮에는 그래도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실려 있다.”

〈표 1〉 朴靑彬(1882.1.7~1931.2.17) 약력

시기	나이	활동사항	비고
1882년 1월 7일	1세	忠南 洪州郡 鎭方面 晚川里 출생 (현 충남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高靈朴氏大同譜, 권3
1888년	7세	漢文私塾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3년 3월	22세	京城學堂 입학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5년 12월 20일	24세	경성학당 普通科 졸업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6년 1월 3일	25세	鐵道吏員養成所 見習工務 입사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6년 3월 30일	25세	동 견습과정 수료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6년 8월 25일	25세	궁내부 황실제도국주사 판임6등 8급에 임명됨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7년	26세	고종 國葬 때 輓章을 씀	고종태황제어장주감의궤
1907년 5월 1일	26세	各宮 事務整理所 記事員에 임명됨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7년 8월 9일	26세	궁내부 황실제도국주사 書記郎 판임8급에 임명됨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7년 8월 20일	26세	각궁 정리사무소 記事員 免職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7년 8월 20일	26세	各宮 정리 사무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 80원 수여	대한제국관원이력서
1909년 6월	28세	일본유학생 항일단체인 大韓興學會에 30원 기부	皇城新聞(1909.6.15)
1910년 4월 9일	29세	해인사 대장경판 15만점 조사	每日申報(1910.4.9)
1910년 5월	29세	궁내부에서 陵官들에게 斷髮하도록 訓諭을 내림에 따라 능관들을 明月館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고 단발	每日申報(1910.5.7)
1911년	30세	고종 후궁 純獻貴妃의 영휘원 조성에 참여	순헌귀비원소도감의궤
1912년	31세	이때를 전후로 서화를 수집하기 시작, 丁學教로부터 怪石圖를 얻음	
1914년 3월 3일	33세	일본 대정박람회를 시찰하고 올 것을 命 받음	순종실록부록, 권5
1914년 6월 22일	33세	이왕직 사무관에 임용되어 고등관 7등에 서임됨	순종실록부록, 권5
1914년 8월 4일	33세	이왕직 사무관 정8위에서 중7위로 승진	순종실록부록, 권5
1916년 6월 10일	35세	이왕직 儀式課 勤勞에 임명됨	조선총독부관보(2016.6.14)
1917년 6월 19일	36세	일본 東京으로 가 영친왕을 逢迎하도록 함	순종실록부록, 권8
1917년 1월 13일	36세	영친왕의 일본행 환송식에 차출됨	매일신보(1918.1.9)
1920년	39세	『高靈朴氏世譜』발행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921년 8월	40세	영친왕 장남 焄의 탄생 축하연을 위해 일본 출장행	매일신보(1921.8.2)

시기	나이	활동사항	비고
1922년 5월 11일	41세	영친왕 장남 쫓의 葬儀委員會에 임명됨	순종실록부록, 권13
1922년 2월	41세	일본에서 돌아온 영친왕이 순종에게 하례드리는 觀見禮式을 거행함	매일신보(1922.2.3)
1922년 5월 12일	41세	李焞의 園所를 영취원 경내로 정함	순종실록부록, 권13
1922년 11월 10일	41세	이왕직 아악연주회를 주관함	동아일보(1922.11.10)
1925년 11월 6일	44세	중국 심양과 대련 등지에 가서 御用品을 조사할 것을 命 받음	순종실록부록, 권16
1926년	45세	순종비 순명효황후 裕陵 遷奉 輓章을 씀	
1927년	46세	李道榮과 李漢福에게 《서창청공》표제를 받음	
1928년 8월	47세	이왕직 主殿課長에 임명됨	매일신보(1928.8.21)
1929년	48세	아들 박우희, 의열단 가입 후 상해로 망명	高靈朴氏大同譜, 권3 容疑朝鮮人名簿
1930년	49세	池運永으로부터 그림을 받고《서창청공》완성	
1931년 2월 17일	50세	서울 자택에서 별세	高靈朴氏大同譜, 권3

제대로 활동도 못한 채 3년 뒤인 1931년 50세를 일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궁내부 소속 말단 主事에서 贊侍, 事務官을 거쳐 課長 지위에까지 오른 박주빈은 겉으로 보면 비교적 영달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직 후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⁵ 박주빈이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1939년,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 《서창청공》을 구입한 사실로 보아 그의 死後 재산과 유품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채 흩어진 것으로 추정된다.¹⁶ 따라서 박주빈이 반평생을 공들여 만든 《서창청공》은 지금까지 관료이자 서화애호가로서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거의 유일한 유품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¹⁷

¹⁵ 『高靈朴氏大同譜』卷3, p. 270. 직계 후손이 없었던 박주빈은 사촌형 朴奎彬의 아들 朴友熙(1911~1933)를 양자로 삼았지만 박우희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고자 家屋 등을 저당 잡아 1929년 상해로 망명한 후에는 일본경찰의 감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우희는 경성제대 학생이자 그림에 소질이 있어 『매일신보』에 작품이 소개될 정도로 명망 있는 청년이었으나, 항일단체인 義烈團에 가입 후 상해로 망명하여 1933년 23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감찰자료인 『容疑朝鮮人名簿』에 등재된 인물이었으며, 박주빈이 1928년 주전과장으로 승진한 후 1931년 사망하기까지 3년간 행적이 모호한 것도 박우희의 이러한 활동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¹⁶ 《서창청공》의 표지 뒷면에 昭和 14년(1939년) 9월 25일 조선총독부 도서관 藏書로 등록했음을 알려주는 인장이 찍혀 있다. 1945년 국립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총독부 장서가 이곳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창청공》도 지금까지 이곳에 전래된 것이다.

¹⁷ 일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행적은 연월일까지 표기했으며, 불분명한 것은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기하였다.

Ⅲ. 朴胄彬의 교유관계와 《書牕清供》의 제작

박주빈은 고종과 순종의 국장 때 輓章을 썼고 1915년 신문지상에 新年 祝詩를 발표 했으며, 1922년에는 李王職雅樂部의 아악연주회 개최를 담당하면서 청중들에게 雅樂에 대해 설명하는 등 평소 예술에 소양이 깊었다.¹⁸ 아마도 이러한 그의 자질이 동시기 서화계 인물들과 교유하게 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래에서는 《서창청공》의 주요한 제작 배경 중 하나인 그의 교유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서화교류와 작품수집

《서창청공》을 통해서 보면 박주빈은 궁내부 시절부터 이왕직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이 봉직하면서 公·私的으로 연결되었던 관리, 학자, 시인, 서화가들과 폭넓은 인적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화첩에 수록된 60명의 작가 중 절반 이상인 34명 정도가 궁내부와 이왕직, 총독부에서 활동한 관료 출신이었다는 점은 그 중심 조직에 몸담고 있던 박주빈의 이력을 감안하면 자연스런 결과로 생각된다.

박주빈이 교유한 왕족과 관료는 그가 곁에서 시종한 의친왕을 비롯해 李垞鎔, 李載克 등 왕족들, 李完用, 尹德榮, 朴箕陽, 趙重應, 李東潤, 韓昌洙 등 친일관료였으나 미술단체 운영에 개입했던 인사들, 李儁, 金嘉鎭, 李容植, 趙鼎九, 金思濬 등 일제에 항거한 민족지식인, 俞吉濬 등 개화사상가, 呂圭亨, 鄭萬朝, 金允植처럼 관료 출신 문장가를 포함한 다양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글씨나 그림에 취미가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점이며,¹⁹ 이를 통해 박주빈은 자신의 서화첩을 꾸릴 때 단지 사회적 지위나 명망이 아닌 서화에 재능 있던 인물들로 나름 기준을 두고 작품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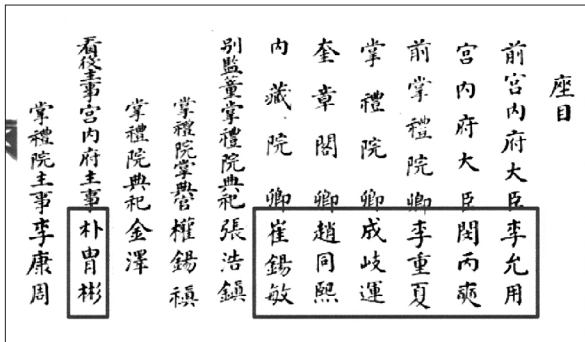
박주빈이 글씨를 받은 李允用, 閔丙奭, 尹澤榮, 李重夏 등은 이왕가 사무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高官들로서, 박주빈은 이들과 함께 왕실행사에 종종 차출되었다(표 2). 실제로 그는 1907년 高宗·英親王尊奉都監을 비롯해 고종 후궁 純獻貴妃의 永徽園 조성 등 12차례 이상 크고 작은 행사에 실무자로 참여하면서 서화에 관심 있던 이들 관료들과 대한제국기부터 궁내부

¹⁸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1919), 『동아일보』(1922.11.10) 등을 통해 확인된다.

¹⁹ 개화사상가이자 서화에 해박했던 金允植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윤식의 활동에 대해서는 송희경, 『雲養 金允植의 서화 감상과 미술 활동』, 『열상고전연구』42호(2014), pp. 41-71.

〈표 2〉 박주빈과 《서창청공》 수록 궁내부·이왕직 관료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행사

순번	행사연도	행사 내용	관련 의궤
1	1907	고종을 壽康太皇帝로 존봉하고 영친왕을 황태자로 책봉	高宗英親王尊奉都監儀軌
2	1908	진종헌종철종 추존의궤	眞宗憲宗哲宗追尊儀軌
3	1910	고종의 형 이재면을 흥왕으로 책봉	興王冊封儀軌
4	1911	고종 후궁 순헌귀비의 園 조성	純獻貴妃園所儀軌
5	1919	고종의 洪陵 山陵 조성	高宗太皇帝山陵主監儀軌
6	1919	고종의 國葬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7	1919	고종의 빈전혼전 설치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8	1921	고종과 명성황후의 祔廟	高宗明成皇后祔廟主監儀軌



(左) 도 3 『眞宗憲宗哲宗追尊儀軌』에 수록된 참석자 명단, 1908년,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표시 부분: 박주빈이 서예작품을 얻은 인물들)

(右) 도 4 《서창청공》에 수록된 궁내부 및 총독부관료들의 글씨(필자촬영)

圖畫主事로 활동한 畫員들²⁰, 미술단체 소속 화가들을 만날 기회를 갖았으며, 이를 계기로 작품에 대한 평가 등 각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08년 진종·철종·헌종 추존도감에서 함께 일했던 이운용, 민병석, 이중하를 비롯해 成岐運, 趙同熙, 崔錫敏의 글씨가 《서창청공》에 모두 수록된 사실을 보면 업무를 통해 서화교류까지 이어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도 3, 4).

²⁰ 박주빈 활동 당시에는 이미 궁내부 소속 화원제도가 철폐되고 이왕직 주관으로 왕실행사가 設行되었기 때문에 규모도 축소되고 참여한 화원의 수도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매우 소략했다. 다만 박주빈은 고종과 순종의 국장, 순헌귀비의 永徽園 조성 행사를 통해 옛 궁내부 소속 화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全修默(1858~?), 徐元熙(1862~?), 李惠泳(1870~?), 姜弼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한제국기 도화주사에 대해서는 박정혜, 『대한제국기 畫院제도의 변모와 畫員의 운용』, 『근대미술연구 2004』(국립현대미술관, 2004), pp. 88-116 참조.



도 5 姜彌周, 《江雪釣魚圖》, 1911년 이후 추정, 비단에 담채,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반면, 박주빈은 왕실행사에 함께 참여한 회원들 중 유일하게 姜彌周(생몰년 미상)의 그림을 소장한 것으로 나타난다(도 5). 강필주는 1911년 純獻貴妃園所都監에 '臨時傭 四人' 중 한 명으로 참여했으며, 이 때 박주빈 역시 실무자로 차출되어 의궤편찬 일을 마무리하였다.²¹ 《서창청공》에 수록된 강필주의 《江雪釣魚圖》는 한겨울 강가에 배를 드리우고 낚시를 하는 인물을 그린 것으로, 낚시꾼의 움츠러든 어깨와 앙상한 가지에 얼어붙은 눈, 먼 雪山이 푸른 색과 어우러져 차가운 계절감을 전해주고 있다. 강필주의 그림은 蘆雁이나 器皿折枝를 소재로 한 작품이 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이 그림은 그의 작품 중 보기 드문 雪景山水이다.

제작시기를 알려주는 기년은 없으나 그가 박주빈을 만난 1911년 이후 그려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주빈이 당대 예술계 인사들과 교류를 하게 된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처럼 업무에서 비롯된 기회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다.

관료사회 뿐 아니라 박주빈은 서화계를 대표한 인물들과도 폭넓게 교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金應元, 吳世昌, 金台錫, 丁學教, 趙錫晉, 安中植, 金圭鎮, 金殷鎬, 金台錫, 李道榮, 李漢福, 金容鎮, 高羲東에 이르기까지 서예가, 화가, 감식가로 활발하게 활동한 당대 명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서화미술회(1911년 설립) 또는 서화협회(1918년 설립) 관계자들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순종과 영친왕 등 이왕가에서 조선인 예술가들이 발족한 미술단체를 후원하고 작품을 구입하는 등 이들을 우대할 것과 유사한 경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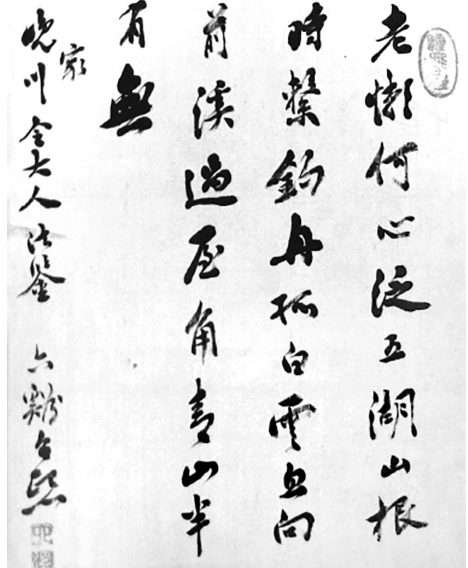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창청공》은 “서화”를 매개로 한 박주빈의 폭넓은 인적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자 이왕직 관료라는 그의 신분이 반영된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²¹ 『純獻貴妃園所儀軌』 「座目」, 1911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2341).

2. 《書窓清供》의 제작 과정과 成帖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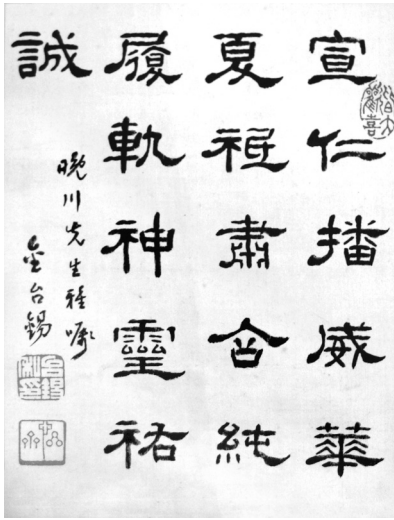
이미 앞 장에서 《서창청공》의 成帖者가 박주빈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帖의 어디에도 제작자와 제작시기를 알려주는 서발문 등 이와 유사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첩에 수록된 朴台熙(1857~1919)가 쓴 시문을 통해 제작자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도 6). 박태희는 자신이 쓴 시문 옆에 “만천 집안어른께서 박주십시오(晩川 家令大人 請鑑)”이라는 문구를 쓰고 관서했는데, 이름에 자신의 성을 생략하였고 ‘영대인’이라며 만천이 집안 어른임을 암시한 것으로 보아 이 첩의 성첩자는 고령박씨 박태희와 같은 문중 인사임을 알 수 있다. 『고령박씨 진사공과 족보』에 의하면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물들 중 “晩川”이라는 호를 쓴 인물로는 1882년 生 박주빈이 유일하다.²² 박태희에 비해 박주빈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향렬이 높았던 관계로, 박태희는 그를 두고 “영대인”이라며 존칭했으며, 두 사람은 고종 연간 궁내부에서 관직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활동시기도 같고 친분도 남달랐다. 박태희는 丁學教, 姜璣熙 등과 더불어 怪石을 잘 그려 고령박씨 인물들 중 유일하게 근대시기 畫壇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이상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창청공》의 성첩자는 만천 박주빈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의친왕이나 윤용구 등 서화첩에 작품이 포함된 인물들 대부분이 그와 직접 교류한 인사들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고종·순종 국장을 위한 輓章을 썼을 만큼 詩文에 소양이 있던 박주빈은 서화에 관심을 돌려 이왕직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1912년을 전후로 작품 수집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창청공》의 형태와 수록된 작품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첩의 규격에 맞게 일정한 크기의 바탕 재질(비단 또는 종이)을 사용했고 간



도 6 朴台熙, 〈詩〉, 연대미상, 비단에 수묵,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²² 박주빈은 ‘晩川’이라는 호로 1915년 1월 8일 『每日申報』에 新年詩를 투고하기도 했다.



도 7 金台錫, 〈詩〉, 연대미상, 비단에 수묵,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도 8 李道榮, 〈花鳥〉, 1927년, 비단에 담채,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간이 공란으로 남겨진 幅이 있거나 화면 바깥으로 먹이나 물감이 칠해진 사례가 있어 미리 만들어진 화면을 제시하고 작품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첩의 후반부에는 크기가 다양한 일부 작품이 함께 장황되어 있어 별도로 얻은 작품의 경우 추가하여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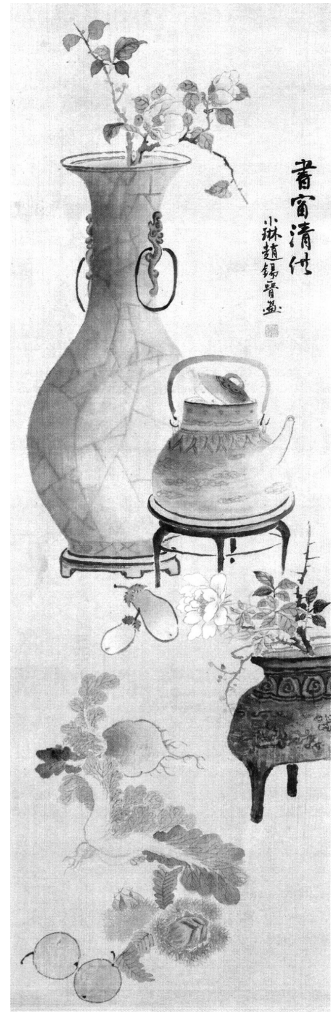
서화첩에 수록된 서화 중 紀年이 있는 작품은 총 6점이며 연대가 1912년~1930년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이 첩에 수록된 작품들을 모은 시기는 이왕직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1910년~1920년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작품이 1912년 作 丁學教(1832~1914)의 〈石蘭圖〉이고, 1927년 李道榮(1884~1933)에게서 서화첩의 표제를 미리 받아놓은 점, 제작 시기가 가장 늦은 작품이 1930년 池運永(1852~1935)의 〈산수인물도〉라는 점을 통해 박주빈은 당대 유명 인사들의 작품을 꾸준히 수집하였고 죽기 일 년 전까지 첩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수집 과정을 보면, 박주빈에게 스스로 작품을 증정한 작가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가 특별히 요청해서 贈與 형식으로 모았을 확률이 크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서예가 金台錫(1874~1951)의 작품 말미에 ‘만천선생의 부탁으로 드린다(晚川先生雅屬)’라고 쓰여 있고 李道榮의 〈花鳥圖〉에서도 ‘穎雲庄에서 晚川仁兄의 부탁으로 그려준다고 명시된 것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도7, 8). 그 밖의 여러 작품에도 “晚川仁兄雅正”, “晚川大人正之” 등 근대시기 동료나 선배를 예우하거나 부탁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한 호칭을 쓴 사례가 확인된다. 또

한 이러한 酬應 과정에서 금전적인 대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서창청공》의 제작 배경과 관련하여 본 서화첩의 제목인 ‘書窓淸供’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書窓淸供’은 서재의 창문 아래 갖춰놓는 청아하고 맑은 器物이라는 의미로, 盆栽, 古銅器, 文房具 등 선비들이 방 안에 구비해 놓고 완상한 대상을 일컫는 ‘淸供’에서 나온 말이다.²³ “서창청공”이라는 단어는 이미 16세기 明代 수장가들 사이에서는 일상화된 용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李夏坤(1677~1724)의 고동서화 완상 취미를 묘사한 趙龜命의 글이나 俞晚柱(1755~1788)의 『欽英』 등 조선 후기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²⁴ 실제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유행한 시점은 19세기 이후이다. 특히 《서창청공》에 수록된 작가들이 활동한 20세기 초에는 주문청탁을 받아 ‘서창청공’이라는 제목으로 器皿折枝圖를 合作 또는 단독으로 그리는 풍토가 확산되면서 박주빈의 서화첩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도 9). 즉 이 서화첩은 박주빈의 요청에 의해 여러 서화가들이 작품을 헌상한 것이므로 이를 ‘서창청공’ 즉 글방에 청아하게 갖춰야 할 아취 있는 대상이자 玩賞物로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주빈이 《서창청공》을 이처럼 공력을 들여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관직 생활을 기념하고 당대 유수의 정치가, 관료, 서화가들과 교유한 인생의 흔적을 스스로 남기고자 한 목적이다. 이는 후사가 없어 자신의 일생을



도 9 趙錫晉, 〈書窓淸供〉, 20세기 초, 비단에 담채, 198.0×74.0cm, 국립중앙박물관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16, p. 256)

²³ 이경화, 「姜世晃의 〈淸供圖〉와 文房淸玩」, 『美術史學研究』 271·272 (2011), pp. 113-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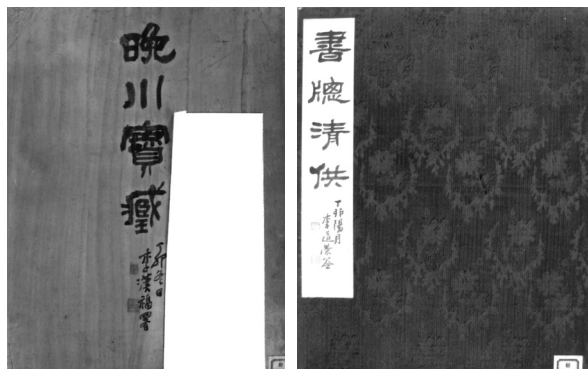
²⁴ 趙龜命, 『東溪集』 卷9, 哀辭「澹軒哀辭」, “尤長於評論山水書畫…內而枕籍兮, 右書左圖, 商彝周鼎兮, 晉帖唐摹, 千架萬軸兮, 充溢棟楹…”; 俞晚柱, 『欽英』 第13冊, 壬寅部(1782) 4月 初8日條, “于明牕觀几, 整良硯古墨佳筆名紙, 或書文章, 或州詩翰, 或今或古, 隨意隨境, 亦有生一樂也.”

기억해 줄 사람이 없었고 죽기 전까지 작품을 받아 첩을 완성하고자 했던 노력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 시대를 풍미한 인사들의 遺作이 수록된 玩賞物을 남기고 싶어 한 收藏意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오동상자 겉면에 쓰인 “晚川寶藏”이라는 문구가 이를 암시해 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박주빈의 서화교류 이면에는 이왕직 관료라는 신분상 특수성이 크게 작용한 만큼, 근대미술에 있어 이왕직 관료들의 서화애호와 후원, 서화미술회 또는 서화협회와 관계된 역할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이는 미술후원자로서 황실의 상징적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그 역할을 이왕직 관료가 일부 대신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세기 초 후원의 주체와 방식이 변모해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V. 《書牕清供》의 구성과 내용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로 분류되어 소장되어 있는 《서창청공》은 1帖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동나무로 만든 견고한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다(도 10). 상자 겉면에는 1927년 겨울, 李漢福이 “晚川寶藏”이라고 예서체로 썼으며, 상자를 열면 꽃문양이 織造된 짙은 군청색 비단으로 장황되었고 “서창청공”이라고 제점을 붙인 서화첩 한 권이 들어 있다(도 11). 題簽은 상자 글씨와 같은 해인 1927년 10월 李道榮이 직접 쓴 것이다. “만천보장”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



(左)도 10 《서창청공》이 보관된 오동나무 상자, 1927년, 31.9×23.9cm, 국립중앙도서관(필자촬영)

(右)도 11 《서창청공》 표지, 1927년, 비단, 31.0×23.0cm, 국립중앙도서관(필자촬영)

와 같이, 이 서화첩은 만천이라는 호를 쓴 인물, 즉 박주빈이 보배롭게 간직할 목적으로 이한복, 이도영 두 화가에게 글씨를 부탁해 특별히 완성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그림과 글씨는 상하 약 25cm 안팎의 정사각형 화면 규격에 맞춰 작성했으며, 일부는 장황하면서 크기를 재단한 흔적도 있다.

《서창청공》에는 義親王 등 60명의 근대작가들이 제작한 총

70점에 달하는 서화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작품의 대략적인 현황은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수록 작가와 작품은 (표 4)에서 일괄 제시하였다. 수록 작가들 중 간혹 이름과 생졸년이 미상인 인물도 있으나, 박주빈이 궁내부와 이왕직에서 근무한 기간(1906~약 1930)과 활동시기가 겹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표 3〉《書愼清供》의 概況



(왼쪽 첫 번째 글씨부터 순서대로) 제1·2폭(義親王 李垺), 제4폭(李垺鎔), 제5폭(尹澤榮), 제6폭(朴泳孝), 제7폭(朴齊純), 제8폭(李儒), 제9폭(金允植), 제10폭(李根命), 제11폭(李完用), 제12폭(李完用), 제13폭(閔丙奭), 제14폭(尹德榮), 제15폭(趙重應), 제16폭(高永喜), 제17폭(閔泳綺), 제18폭(李容植), 제19폭(李允用), 제20폭(趙東潤), 제21폭(李載克), 제22폭(韓昌洙), 제23·24폭(尹用求), 제25폭(李根澤), 제26폭(任善準), 제27폭(閔種默), 제28폭(李芑榮), 제29폭(李正魯), 제30폭(趙鼎九), 제31폭(金宗漢), 제32폭(金思濬)



(왼쪽 첫 번째 그림부터 순서대로) 제51폭(丁學教), 제52폭(安中植), 제53폭(趙錫晉), 제54폭(姜弼周), 제55폭(金應元), 제56폭(金圭鎭), 제57폭(金殷鎬), 제58폭(高義東), 제59폭(李道榮), 제60폭(李漢福), 제61폭(金容鎭), 제62폭(金寧鎭), 제63폭(沈寅變), 제64폭(池運永), 제67폭(金振宇), 제69폭(金始元), 제70폭(俞鎭贊), 제73폭(金容鎭)

〈표 4〉《書廳淸供》 수록 작가와 작품

수록 순서	작가명	생졸년	작품 수량	제작시기	비고
제1폭	義親王	1877~1955	詞句 1점		고종 제5남, 박주빈이 侍從함
제2폭	李 堉		詩文 1점		
제3폭	공란	-	-	-	-
제4폭	李竣鎔	1870~1917	詩文 1점		興親王 李載冕의 아들
제5폭	尹澤榮	1876~1935	詩文 1점		순종의 장인
제6폭	朴泳孝	1861~1939	詩文 1점		中樞院 고문
제7폭	朴齊純	1858~1916	詩文 1점		중추원 議官/ 서예
제8폭	李 儁	1859~1907	詞句 1점		헤이그 특사
제9폭	金允植	1835~1922	詩文 1점		황실제도국총재, 서화협회 부총재/문장, 서예, 畵論
제10폭	李根命	1840~1916	詩文 1점		궁내부 특진관
제11~12폭	李完用	1858~1926	詩文 1점 (扇面)	1923	중추원고문, 서화미술회, 서화협회 고문/ 서예
제13폭	閔丙奭	1858~1940	詩文 1점		이왕직장관, 서화협회 회원/서예
제14폭	尹德榮	1873~1940	詩文 1점		순정효황후 삼촌, 궁내부 특진관
제15폭	趙重應	1860~1919	詩文 1점		중추원고문, 서화미술회/서화
제16폭	高永喜	1849~1916	詩文 1점		중추원 참의
제17폭	閔泳綺	1858~1927	詩文 1점		이왕직장관
제18폭	李容植	1852~1932	詩文 1점	1921	궁내부 특진관, 3·1운동가담
제19폭	李允用	1854~1939	詩文 1점		중추원의관, 이완용의 형
제20폭	趙東潤	1871~1923	詩文 1점		군무국장, 서화협회 명예회원/ 서예, 蘭
제21폭	李載克	1864~1931	詩文 1점		고종의 8촌, 이왕직장관
제22폭	韓昌洙	1862~1933	詩文 1점		이왕직장관, 중추원 고문
제23폭	尹用求	1853~1939	詩文 1점		이조판서, 1926년 裕陵 遷奉都監에서 박주빈과 함께 근무/ 서예, 蘭竹
제24폭			墨竹 1점		
제25폭	李根澤	1865~1919	詩文 1점		궁내부 특진관, 중추원의장
제26폭	任善準	1860~1919	詞句 1점		탁지부대신
제27폭	閔種默	1835~1916	詩文 1점		유릉천릉도감제조, 예식원장
제28폭	李胄榮	1837~1917	詩文 1점		장예원, 궁내부 특진관
제29폭	李正魯	1838~1923	詩文 1점		봉상시제조, 궁내부 특진관
제30폭	趙鼎九	1862~1926	詩文 1점		홍선대원군 둘째사위, 궁내부 특진관, 왕실의례 담당
제31폭	金宗漢	1844~1932	詩文 1점		장예원경, 궁내부 특진관
제32폭	金思濬	1855~1917	詩文 1점		내장원경, 궁내부 특진관, 고종 러시아망명계회 가담
제33폭	朴箕陽	1856~1932	詩文 1점	1912	중추원참의, 서화협회 회원, 조선미술전람회 평의원
제34폭			墨竹 1점	1912	
제35폭	李明義	미상	詩文 1점		약력 미상
제36폭	李載峴	1859~1943	詩文 1점		왕족, 이완용내각 학부대신
제37폭	李重夏	1846~1917	詩文 1점		장예원경, 궁내부 특진관
제38폭	成岐運	1847~1924	詩文 1점		중추원 부의장
제39폭	趙同熙	1856~?	詩文 1점		장예원경, 궁내부 특진관

수록 순서	작가명	생졸년	작품 수량	제작시기	비고
제40폭	朴台熙	1857~1919	詩文 1점		고종연간 비서원승, 박주빈의 조카/ 怪石, 竹石
제41폭	俞吉濬	1856~1914	詩文 1점		개화정치사상가, 김홍집 내각 내무협판/ 서예
제42폭	金嘉鎭	1846~1922	詞句 1점		공상공부대신, 서화협회 회원, 독립운동/ 서예
제43폭	呂圭亨	1848~1921	詩文 1점		구한말 관료, 金允植, 鄭萬朝와 교류, 문장과 글씨
제44폭	鄭萬朝	1858~1936	詩文 1점		규장각부제학, 이왕가실록편찬위원회/ 문장과 글씨
제45폭	李容泰	1854~1922	詩文 1점		학부대신, 궁내부특진관
제46폭	權重顯	1854~1934	詩文 1점		조선사편수회 고문
제47폭	李夏榮	1858~1919	詩文 1점		한성부관찰사, 중추원 고문
제48폭	崔錫敏	1858~1915	詩文 1점		중추원 참의, 내장원경
제49폭	金文濟	1846~1926 이후	詞句 1점		경연관, 1926년 박주빈과 유흥침봉도감에서 근무/ 문장, 서예
제50폭	吳世昌	1864~1953	銘文 1점	1916	서화협회 발기인
제51폭	丁學教	1832~1914	石蘭 1점	1912	서화미술회, 尹用求와 교류
제52폭	安中植	1861~1919	山水 1점		서화협회 초대회장/ 서화
제53폭	趙錫晉	1853~1920	魚蟹 1점		서화협회 2대 회장
제54폭	姜弼周	20세기 초	山水 1점		서화미술회 교수, 서화협회 회원, 1911년 순현귀비 원소도감에서 박주빈과 근무
제55폭	金應元	1855~1921	墨蘭 1점		서화미술회, 서화협회 발기인
제56폭	金圭鎭	1868~1933	墨竹 1점		궁내부 의사과주사, 내장원 주사, 서화협회 발기인
제57폭	金殷鎬	1892~1979	花卉 1점	1915	1912년 서화미술협회 입학
제58폭	高義東	1886~1965	山水 1점	1927	궁내부주사, 예식관, 1918년 서화협회 발기인
제59폭	李道榮	1884~1933	花鳥 1점	1927	1911년 서화미술회, 1918년 서화협회 발기인
제60폭	李漢福	1897~1944	松 1점	1927	서화협회 회원, 안중식·조석진 사사
제61폭	金容鎭	1878~1968	모란 1점		수원군수, 서화협회 회원, 이도영 사사, 골동서화
제62폭	金寧鎭	20세기 전반	詩文 1점	-	서화협회 회원 1923년 조선미술전람회 서예부문 입상 등
제63폭	沈寅燮	1875~1939	山水 1점		서화협회 회원
제64폭	池運永	1852~1935	山水 1점	1930	서화협회 회원 *형 지석영이 1926년 박주빈과 유흥침봉도감에서 근무
제65폭	金台錫	1874~1951	詩文 1점		궁내부주사, 미술시찰원/ 서예, 전각
제66폭			詩文 1점		
제67폭	金振宇	1883~1950	墨竹 1점		서화미술회, 서화연구회 회원
제68폭	공란	-	-	-	-
제69폭	金始元	미상	墨蘭 1점		미상
제70폭	俞鎭贊	1866~1947	梅畫 1점		상주군수, 중추원 촉탁/ 梅
제71폭	미상 (인도인)	미상	詩文 1점	1820	힌디어로 쓰인 편지
제72폭	미상	미상	山水 1점		無款署/ 박주빈 그림으로 추정
제73폭	金容鎭	1878~1968	梅畫 1점		“晚川先生正之”



도 12 李漢福, 〈松〉, 1927년, 비단에 담채,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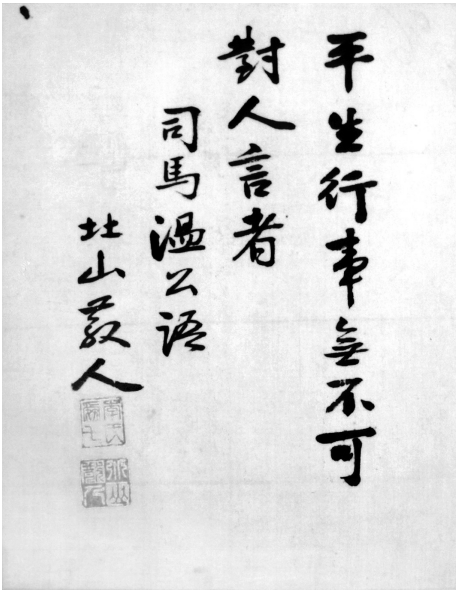
서화첩의 체제와 순서, 구성을 보았을 때 박주빈은 나름의 기준을 세워 작품의 배열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義親王 李堯(1877~1955)의 글씨를 가장 앞에 두었고 이어서 궁내부와 이왕직, 총독부를 거쳐 간 관료들의 서예작품 36점을 수록했으며, 서예작품 다음에 丁學敎의 《괴석도》를 시작으로 安中植(1861~1919)의 《산수도》를 비롯해 姜弼周, 趙錫晉(1853~1920), 金圭鎭(1868~1933), 金應元(1855~1921) 등 16명 화가의 그림을 차례로 배치하였다. 글씨의 경우 篆書, 楷書, 行書 등 유사한 書風의 작품들끼리 이어서 배열하였고 그림의 경우, 조석진의 魚蟹, 김규진의 墨竹, 김응원의 墨蘭처럼 화가들이 평소애 즐겨 그린 소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도영과 이한복은 《서창청공》의 표지 제점과 오동상자의 제목을 쓴 1927년과 동일한 해에 花鳥와 소나무를 그려주었는데 이도영의 《화조도》는 채색 위주의 밝고 따뜻한 색감이 돋보이는 전형적인 선물용 그림인 반면 이한복의 소나무 그림은 배경을 생략하고 과감하게 나무 등치의 상단을 확대 배치해 현대적인 감각을 물씬 드러낸 작품이다(도12).

《서창청공》에 수록된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短幅의 규모에 맞게 구도를 잡아 짜임새가 있으며 작가의 서명과 인장이 한 세트를 이루어 시각적인 완성도가 높다. 가장 먼저 수록된 의친왕 이강의 글씨 2점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을 통해 米芾, 顏真卿, 董其昌의 서법을 익혀 자기만의 방식대로 다양하게 변용한 근대 書壇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으며, 행서의 유행 속에서 篆書와 隸書 분야에 명성을 남긴 吳世昌(1864~1953)과 金台錫의 작품도 포함되었다.²⁵ 그 중에는 “평생 한 일이 남에게 말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平生行事, 無不可對人言者)”라고 한 司馬光의 말을 인용해 親日과 抗日이 공존한 시대에 멋있는 삶을 지향한 李儁 열사의 글처럼 의미

²⁵ 각 화가들의 작품활동에 대해서는 학위논문 및 개별 논고 등을 통해 연구가 많이 진척 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세한 각주는 생략하고자 한다.

²⁶ 오세창의 서예를 비롯해 근대 書壇의 경향에 대해서는 이승연, 『葦滄 吳世昌』(이화문화사, 2000).



도 13 李僑, 〈詩〉, 연대미상, 비단에 수묵,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도 14 沈寅燮, 〈梅華小屋圖〉, 연대미상, 비단에 담채,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심장한 여운을 전해주는 글씨도 있으며(도 13), 그림의 경우 사군자와花草, 산수와새 등을水墨淡彩로 때로는 호방하게 때로는 아기자기하게 그려 작가의 개성은 물론 수요자와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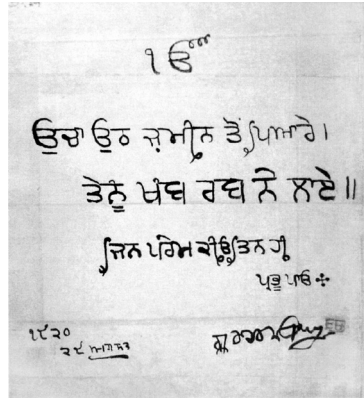
그 중 서화협회 회원이었던 沈寅燮(1875~1939)의 〈梅華小屋圖〉는 전통적인 소재를 작가 나름대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된다. ‘梅花書屋’이라는 제목에 화면 가득 흐드러지게 핀 매화와 그 속에 숨어 있는 서재를 표현한 조선말기 경향과 달리, 제목의 한자를 華와 小로 약간 변형하였고 한쪽으로 쏠린 암벽 위에 매화나무를 몇 그루만 배치하고 遠山과 中景의 공간감을 살린 색다른 화풍을 창안하였다(도 14). 수묵담채로 담담하게 그린 산수와 화조화에 특징이 있었던 심인섭의 작품세계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의 작품이 《서창청공》에 실린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일정한 평가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소품인 그림들 중에는 회화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들도 몇몇 포함되어 있다. 그 중 石蘭으로 유명한 丁學敎의 경우, 말년 작품 중 괴석 안에 “夢中” 인장을 찍은 작품으로 1913년 기년작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었으나, 《서창청공》에 수록된 〈石蘭圖〉를 통해 그 보다 앞선 1912년에도 괴석 안에 “몽중” 인장을 찍은 작업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도 15, 16). 또한 소박하면서 간절한 매화를 잘 그린 俞鎭贊의 그림 역시 그가 즐겨 그린 折枝風의 전형적인 구도와 필치를 보여



(左)도 15 丁學教, 〈石蘭圖〉, 1913년, 비단에 수묵, 24.8×30.6cm, 개인소장 (『K옥션 경매출품도록』, 2006, p. 28)

(右)도 16 丁學教, 〈石蘭圖〉, 1912년, 비단에 수묵,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左)도 17 작자미상, 〈水墨山水圖〉, 종이에 수묵,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右)도 18 「힌디어로 쓰인 시」, 종이에 잉크, 《서창청공》 수록(필자촬영)

주고 있어 1920년대 작품 양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화첩의 말미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작자미상의 〈水墨山水圖〉 한 점과 힌디어(Hindi語)로 쓰인 글 한 편이 첨가되어 있다(도 17, 18). 〈수묵산수도〉는 畫譜風 그림으로서, 餘技畫家 다운 소박한 필치와 구도, 색감, 어색한 먹의 운용 등으로 보아 혹시 박주빈이 그린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²⁷ 〈수묵산수도〉와 나란히 장첩된 힌디어 글은 1820년이라는 연대가 있어 1882년 생인 박주빈과 안면이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은 없고 내용적으로도 서화첩의 성격과도 무관하다.²⁸ 다만 그가 중국과 일본 출장을 다녀온 사실에 비추어 이 과정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역시 《서창청공》의 이국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V. 近代 書畫收藏 자료로서 《書牕清供》의 성격과 의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창청공》은 박주빈이 교유한 당대 주요 인물들의 서화작품을 수집한 것으로, 20세기 초 서화가들의 활동상과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수집한 향유층의 일면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帖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들은 당시 미술계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준다고 해도 손색이 없으며, 근대 서화가들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서창청공》 통해 1910~1930년대 서화계를 주도한 작가들, 종합정리가 미진했던 관료출신 작가들의 명단과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창청공》은 개별 작가들의 활동이력 뿐 아니라 수장가들이 當代 문화사에 끼친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박주빈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모았고 서화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書畫觀을 밝힌 글은 물론 다른 작품들도 소장했는지 등에 관한 기록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서창청공》을 통해 그의 서화에 대한 태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서화첩에 실린 서화가 그가 직접 청탁해서 받은 작품들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주문자였던 그의 취향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미술계의 한편에서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양화의 유입과 동양화의 개량화를 추구하는 변화의 바

²⁷ 조선후기 수장가 金光國(1727~1797)의 『書苑別集』에서 볼 수 있듯이, 간혹 수장가가 자신이 모은 작품들 사이에 자신의 작품을 끼워 넣음으로써 제작자의 존재를 알리는 방식을 취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서창청공》에는 이를 증명해 줄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²⁸ 《서창청공》에 수록된 힌디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神이 네게 날개를 부여하였으니 네가 땅으로부터 날아 오를 것이다. 사랑을 알고 사랑 받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리니, 이는 神이 네가 날아올 수 있는 선택을 허락하였으며 자유를 부여했다는 뜻이다. 神은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이를 귀히 여기는 자와 함께 하시리라. 1820년 8월.”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 인용)



(左)도 19 姜弼周, 〈器皿折枝圖〉, 1917년, 비단에 채색, 각 128.0×52.3cm, 국립고궁박물관(『태평성대를 꿈꾸며』, 국립춘천박물관, 2004, p. 37)

(右)도 20 李漢福 〈魚蟹圖·蘆雁圖〉, 1917년, 비단에 채색, 각 157.7×52.5cm, 국립고궁박물관(『태평성대를 꿈꾸며』, 국립춘천박물관, 2004, p. 24)

람이 불고 있었고 박주빈과 교유한 李漢福을 비롯한 화가들도 그러한 분위기에 동참했지만,²⁹ 《서창청공》속 작품들은 이러한 시류와 無關하게 개별 작가들이 창작의 근간을 두었던 전통적 소재와 표현을 추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박주빈의 서화취향은 물론 이왕가 및 관료사회가 선호한 미술양식을 대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료이자 서화수장가였던 박주빈의 활동은 이왕가를 대변해 미술계를 후원한 李王職의 역할과도 연결된다. 이왕직의 주된 사무분장은 고종·순종을 위시하여 왕공족들의 업무, 구 황실재산 관리 등이었으나 근대식 미술교육 제도를 표방한 서화미술계와 밀착되었던 이왕가를 대신해 작가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도 했다.³⁰ 1917년 창덕궁의 주요 전각들이 화재로 피해를

²⁹ 김소연, 「한국 근대기 미술 유희를 통한 '동양화'의 추구 : 채색화단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7 (2014), pp. 249-276; 강민기, 「근대의 화조화가 이한복(李漢福, 1897~1944)」, 『미술사연구』 26 (2012), pp. 215-236.

³⁰ 20세기 전반 이왕가의 미술후원과 이왕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은술, 「일제강점기 李王家의 미술 후원 : 英親王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9 (2015), pp. 171-207 참조.

입자 서화미술회 소속 화가들인 姜璣熙, 강필주, 이한복, 이도영 등에게 궁중 내부를 장식할 작품 제작을 의뢰한 것을 비롯해 1920년 창덕궁 벽화 작업은 이왕가가 조선인 미술단체를 후원한 대표적 사례이다(도 19, 20).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20세기 초반 관료사회와 미술계가 밀접했던 배경에는 친일고관들을 내세워 경제적으로 후원하면서 조선미술인들을 포섭하고자 한 총독부의 입장과, 반대로 일제의 간섭을 완화시켜 대외적인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했던 미술인들의 의도가 혼재되어 있었다.³¹ 당시 총독부관리들과 서화미술단체의 모임이 종종 신문지상에 등장한 것도 兩者간의 이러한 입장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도 21). 《서창청공》의 경우 이러한 총독부의 의도와 무관한 것이지만, 20세기 초 관료사회와 미술인들의 밀접했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³² 아울러 《서창청공》은 당시 공개적으로 운영된 서화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박주빈 본인의 힘으로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득했다



도 21 총독부관리들과 서화협회 회원들의 오찬 회동을 보도한 신문기사 (『매일신보』, 1923년 11월 12일)

³¹ 이성혜·강명관, 「한국 근대 서화계의 형성과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33호 (2011), pp. 301-324.

³² 이러한 결과는 서화가들이 생활인으로서 관료사회에 진입하게 된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민기, 「제국의 황실화가들, 화가에서 '시대인'으로」, 박정혜 외, 『왕의 화가들』 (돌베개, 2012), pp. 218-283; 이연숙, 「惺齋 金台錫의 篆刻 研究」, 『書藝學研究』 10 (2007), pp. 158-176; 유지복, 「惺齋 金台錫의 서예와 전각」, 『한국미술사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pp. 7-9 참조.

는 점에서 수록 작품에 대한 眞僞를 보장하고 있다. 박주빈의 鑑識眼에 대해 알려진 글은 없지만 《서창청공》이 그의 감식안을 대변하고 개별 작가들의 기준작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이왕직 관료 朴冑彬의 활동과 그가 만든 서화첩 《서창청공》을 통해 20세기 초 관료조직에 있던 인물과 예술가들이 '서화'를 매개로 형성한 교유와 작품수집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정치·사회·문화 현상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최근 학계의 흐름 속에서 李王職 관료 중 특정인을 주제로 다룬 사례가 없었기에 박주빈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그가 만든 서화첩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또한 李王職이 일제의 통치수단이나 조선인 회유기관으로 주로 알려진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박주빈의 사례를 통해 이왕직이 당대 서화계와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였고 근대 한국미술사의 형성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본인 관료 위주로 편성된 조선총독부와 달리 이왕직은 고종과 순종, 의친왕과 영친왕을 비롯한 대한제국 황실 가족과 조선인 관료들이 다수 속해있었으므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이왕직이 안중식, 조석진, 지운영, 김은호, 김규진, 김태석 등 관료 출신 근대 서화가들이 몸담고 교류한 구심체였다는 점, 李王家 왕족들이 조선인 예술가들을 후원한 통로이자 이도영, 강필주 등 이왕직 관료들과 교유한 화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한 장소였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왕실미술의 존립을 파악하는데 단서를 제공해 준다.

박주빈은 궁내부와 이왕직을 거치며 왕족들을 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각종 禮式을 비롯해 宮·陵 등 이왕직 재산을 관리한 업무를 맡았다. 그는 서화에 관심이 많아 이왕직 생활을 시작한 1910년대부터 사망하기 일 년전인 1930년까지 자신과 교유한 정치가, 학자, 서화가 60명의 작품을 수집하여 《書廳淸供》이라는 두터운 서화첩을 완성하는데 모든 공력을 다하였다.

帖에 작품이 수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와 관직생활을 함께한 관료들이자 정치와 학계를 아우른 명사들이었다는 점에서 박주빈의 폭넓은 교유와 사회적 위상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그림의 경우 서화미술회, 서화협회 소속 화가들의 작품 위주로 수집한 것은 순종과 영친왕

이 이왕직을 통해 두 단체 화가들을 후원하고 있었고 이들이 왕실 소용 그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주빈이 이들 단체 소속 화가들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모으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가 반평생을 노력해 만든 《書牕淸供》은 1900년대 초 서화가들이 궁내부 또는 이왕직에 근무하면서 서로 교유를 형성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실례이자 전통적 소재와 표현을 선호한 이왕가 또는 관료층 인사들의 보수적인 취향이 반영된 수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1910~1930년대 활동한 주요 서화가들의 작품을 마치 列傳式으로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서화계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종합정리가 미진했던 관료출신 작가들의 명단과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화가로서 이들의 작품세계 역시 본격적으로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書牕淸供》은 일제강점기 왕실미술과 후원의 계승, 관료와 예술가의 역할, 수집과 감상에 있어 전통과 변화가 교차하던 시대적 중간 지점에서 활동한 수집가의 면모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近代 收藏史와 人物史 연구를 위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작품이다.

***주제어(key words)**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Japanese Colonial Period), 근대(近代, Modern era), 이왕가(李王家, Yi Royal Family), 이왕직(李王職, Office of the Yi Royal Family), 서화수장(書畫收藏, Collection of Painting and Calligraphy), 수집가(收藏家, Collector), 박주빈(朴耆彬, Park Ju-bin), 서창청공(書牕淸供, Seochang cheongong: Panoply of Pure Collectibles along Window of a Scholar's Study), 서화미술회(書畫美術會, Seohwa misulhoe: Painting and Calligraphic Art Association), 서화협회(書畫協會, Seohwa hyeopoe: Society of Painting and Calligraphy)

▣ 투고일 2019년 2월 8일 | 심사개시일 2019년 2월 9일 | 심사완료일 2019년 2월 22일 ▣

참고문헌

1. 원전사료

- 『高宗實錄』,
『純宗實錄』,
『觀瀾亭日記』, 鄭觀海, 1910~1940.
『高靈朴氏大同譜』, 회상사, 1987.
『大韓帝國官員履歷書』, 영인본: 탐구당, 1971.
『朝鮮紳士大同譜』, 日韓印刷株式會社, 1913.
『高宗英親王尊奉都監儀軌』, 1907.
『眞宗憲宗哲宗追尊儀軌』, 1908.
『興王册封儀軌』, 1910.
『純獻貴妃園所儀軌』, 1911.
『高宗太皇帝山陵主監儀軌』, 1919.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1919.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1919.
『高宗明成皇后祔廟主監儀軌』, 1921.
『純明皇后遷奉主監儀軌』, 1926.
『純宗孝皇帝御葬主監儀軌』, 1926,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1926.
『純宗純明皇后祔廟主監儀軌』, 1928.
『李王職職員案』, 1911.
『李王職日記』, 1926.
『每日申報』, 『皇城新聞』 등 고신문자료.

2. 논저

- 국립고궁박물관 편, 『대한제국』, 민속원, 2011.
국립고궁박물관 편, 『창덕궁 대조전 벽화』,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韓國 歷代書畫家 事典(상·하)』, 2015.
『高靈朴氏 進士公派 寄贈遺物』, 천안박물관, 2012.
강민기, 『근대의 화조화가 이한복(李漢福, 1897-1944)』, 『미술사연구』 26, 2012.

- _____, 「근대전환기 한국화단에의 日本畫 유입과 한국화가들의 일본제험」, 『美術史學研究』253, 2007.
- 김명수, 「1915-1921년도 구황실(李王家)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藏書閣』35, 2016.
- 김상엽, 『미술품 컬렉터』, 돌베개, 2015.
- 김상엽, 「한국 근대의 골동시장과 京城美術俱樂部」, 『동양고전연구』19, 2003.
- 김소연, 「韓國近代專門書畫教育의 先導, 書畫美術會」, 『美術史論壇』제36호, 2013.
- _____, 「한국 근대기 미술 유학을 통한 ‘동양화’의 추구 : 채색화단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27, 2014.
- 김예진, 「李道榮의 미술활동과 회화세계」,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운수 외, 『한국미술 100년』, 한길사, 2006.
- 목수현, 「일제하 이왕가 박물관(李王家博物館)의 식민지적 성격」, 『美術史學研究』227, 2000.
- 박정혜, 「대한제국기 書院제도의 변모와 畫員의 운용」, 『근대미술연구 2004』, 국립현대미술관, 2004.
- _____, 「藏書閣 소장 일제강점기 儀軌의 미술사적 연구」, 『美術史學研究』259, 2008.
- 박정혜·윤진영·황정연·강민기, 『왕과 국가의 회화』, 돌베개, 2011.
- 박정혜·황정연·윤진영·강민기, 『조선 궁궐의 그림』, 돌베개, 2012.
- 박정혜·황정연·윤진영·강민기, 『왕의 화가들』, 돌베개, 2012.
- 서지민, 「이왕직미술품제작소 연구 : 운영과 제작품의 형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송희경, 「雲養 金允植의 서화 감상과 미술 활동」, 『열상고전연구』42호, 2014.
- 신명호, 「일제하 李王職과 李王家 族譜」, 『한국학대학원논문집』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66.
- 안휘준, 「朝鮮王朝 末期(약 1850-1910)의 畫壇과 畫風」, 『조선말기회화전』, 삼성미술관 리움, 2006.
- 이경화, 「姜世晁의 〈淸供圖〉와 文房淸玩」, 『美術史學研究』271·272, 2011.
- 이승연, 『葦滄 吳世昌』, 이희문화사, 2000.
- 이승엽,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및 공공문서관 소장 이왕가 관련 문서의 현황과 연구」, 『藏書閣』31, 2014.
- 이승우,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李王職의 운영」,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운상,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韓國文化』40, 2007.
- 이성혜·강명관, 「한국 근대 서화계의 형성과 성격」, 『동양한문학연구』33호, 2011.
- 이왕무, 「李王職의 유래와 장서각 소장 이왕직 자료의 沿革」, 『藏書閣』31, 2014.
- 이지선·아마모토 하나코, 「職員錄을 통해서 본 李王職의 職制 연구」, 『東洋音樂』26호, 2004.
- 장 신, 「일제하 이왕직의 직제와 인사」, 『藏書閣』35, 2016.
- 장영숙, 「李王職의 高宗·純宗實錄 편찬사업과 그 실상」, 『史學研究』116, 2014.
- 정옥재, 「국가기록원 소장 ‘이왕직 관련 자료’의 현황과 가치」, 『藏書閣』31, 2014.
- 조은솔, 「일제강점기 李王家의 미술 후원-英親王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조은정, 「〈서화협회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미술사학』29, 2015.
- 최공호, 「李王職美術品製作所 研究」, 『古文化』34, 1989.
- 홍선표, 『한국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이왕직 관료로 활동한 朴靑彬(1882-1931)이라는 인물에 주목하여 서화감상과 후원의 場으로서 이왕직의 기능과 일제강점기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서화교류가 갖는 미술사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주빈은 궁내부와 이왕직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李王家 왕족들을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왕실 禮式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관료이다. 그는 서화에 관심이 많아 관직 생활을 시작한 1910년대부터 세상을 떠나기 일 년전인 1930년까지 자신과 교분을 나누는 정치가, 학자, 서화가 60명으로부터 작품을 수집하여 《書廳淸供》이라는 서화첩을 완성하였다. 이帖에 작품이 수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와 관직생활을 함께한 관료들이자 정치와 학계를 아우른 명사들이었다는 점에서 박주빈의 높은 人望과 사회적 위상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書廳淸供》에 수록된 그림의 경우 서화미술회, 서화협회 소속 화가들의 작품 위주로 구성된 것에 대해 순종과 영친왕이 이왕직을 통해 두 단체 화가들을 후원하고 있었고 이들이 왕실 소용 그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주빈이 관련 화가들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書廳淸供》은 박주빈이 직접 교유한 당대 주요 인물들의 서화작품을 수집한 것으로, 20세기 초 서화가들의 활동상과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수집한 향유층의 일면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당시 미술계의 흐름을 일별하고 근대 서화가들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帖에 수록된 작가와 작품들을 통해 1910-1930년대 서화계를 주도한 작가들, 종합정리가 미진했던 관료출신 작가들의 명단과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서화첩이 지닌 중요한 의의라고 하겠다. 아울러 전통적 소재와 표현을 선호한 이왕가 또는 관료층 인사들의 보수적인 취향이 반영된 결과물로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박주빈은 근대 왕실미술과 후원의 계승, 서화계에 끼친 관료들의 역할, 수집과 감상에 있어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던 시대적 전환기에서 활동한 수장가의 면모를 복합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Pure Collectibles along Scholar's Window: Collection of Painting and Calligraphy by Park Ju-bin an Official from Yiwangjik

Hwang, Jung-yon*

Paying scholarly attention to Park Ju-bin (朴胄彬, 1882~1931), who has served Yiwangjik (王李職) or the Office of the Yi Royal Family, this essay examines how the Office facilitated appreciations of, and patronage for, painting and calligraphy; and seeks to understand the arthistorical significances of cultural exchanges that distinguished individuals of different social standings carried out with painting and calligraph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echnical charge of royal rituals and ceremonies, Park Ju-bin has closely served the Yi Royal Family members for nearly thirty years from various posts of Gungnaebu (宮內府, Council of the Royal Household) and later Yiwangjik. Deeply interested in painting and calligraphy, Park produced an album of the ink-brush arts under the title *Seochang cheonggong* (書廳清供). The compilation album (translatable as “Panoply of Pure Collectibles along Window of a Scholar’s Study”) is based on what Park has collected from a total of sixty eminent individuals – including politicians, scholars, and professional artists – with whom he has established contact for the duration of his public service (1910~1930). They consist mostly of Park’s fellow officials or renowned figures from political and academic spheres, the membership suggesting Park’s high reputation and social status. In particular, the paintings in the album were primarily by artists affiliated to Seohwa misulhoe (書畫美術會, Painting and Calligraphic Art Association) or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eohwa hyeopoe (書畫協會, Society of Painting and Calligraphy). Probably Park has prioritized to collect works by members of the prestigious art organizations: for example, the painters of the Association and the Society enjoyed royal patronage of Yiwangjik—by the will of King Sunjong (純宗, 1874~1926; r. 1907~1910) and his brother Yeongchinwang (英親王, 1897~1970)—and constituted the mainstays of art productions for the royal house.

Comprised of paintings and calligraphy by Park's associates of social importance, the *Seochang cheonggong* provides a glimpse into the breadth of the artists' activities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s well as into an enthusiastic audience who admired and collected their artworks. Given the scanty of materials offering a general view on the art world of the period nor a wide command over contemporary public perception of modern artists, the album *Seochang* holds a profound significance since the involved artists include not only those who exercised a leadership in the community of painters and calligraphers of the time but also those of bureaucratic origin whose artistic careers await further synthetic studies. The album discloses a preference for traditional subjects and conventional styles: perhaps the conservatism to likings of Royal households or of high-ranking officials. These various traits of this album combine to show that Park represents the art collectors dealing with a complexity of issues such as the continuation of the royal art and patronage, the roles of bureaucrats in art, and art appreciations and collections over the transitional epoch especially when the innovative were steadily making inroads into the traditional.